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2022 - 2
종강예배
2022.12.05 월 PM 6
학생회관 (63동) 라운지

MESSENGER
차성진 목사

예배 후 식사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KAKAOTALK | 서울대기독교인연합
INSTAGRAM | @SNU_CHRISTIANUNION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종강예배가 12월 5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의 말씀은 차성진 목사가 담당한 다. 주제는 '이미 시작된 해결' 이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이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간사칼럼 ... 신원식, 유서라
- 2면 단대기연 소식 ... 한강현
선교단체 소식 ... 최민호
- 3면 중앙위원의 글 ... 이다은
사역 소식 ... 강희경
- 4, 5면 돌아보는 2022 ... 편집부
- 5면 돌아보는 진나빛 2022 ... 장동원
- 6면 신앙 MT 인터뷰 ... 문예은
- 7면 개강예배 후기 ... 이조은
- 8면 개강예배 사진

간사칼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삼상 15:22-23)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행 13:21-22)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시지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 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삼상13장).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앞서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자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 사무엘이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흩어졌고, 조급함을 느낀 사울은 그만 조급하게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은 도착해,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을 책망하니, 사실 번제는 제사장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인데, 사울은 도리어 사무엘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핑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삼상15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때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다만 가지 않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는지 질문하니, 사울이 백성을 핑계대며,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핑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삼상18-26장)

사울은 단장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창을 던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니, 요나단에게도 단장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도망하는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도 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제사장들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도 계속 죽이려고 한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자살하고, 자신의 세 아들도 전쟁으로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삼상31장).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목소리 청종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삼상17장).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나이도, 무기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과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

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둘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여, 죽이지 않고(삼상24,26장), 블레셋(삼상23장,삼하5장), 아말렉(삼상30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움직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또한 모든 전쟁에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주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싸웁니다. 절대로 스스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간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셋째,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드리고, 즉시 회개합니다(삼하12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것이 나단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울이었다면, 나단에게 핑계를 대었을 것이지만 다윗은 그 책망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사하고, 다윗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늘 듣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는 피니쉬웰(finish well)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원식 목사(LDI)

아름답고 안전한 곳 주께서 줄로 재어 준 곳 여기



시편 16편은 다윗의 미담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위기에 처해있고 피할 곳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16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의 인생에는 홀로 외로이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안전을 위해 피해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피하고 싶은 일부터 절대 피하고 싶은 것까지 다양한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집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당장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나 시험을 치르는 것도 우리에게 고통과 위기로 닥쳐옵니다. 대인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세상에 자기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위험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안전하지 못하여 자연재해에 무너져 내리고 물이 들이닥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길을 가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은 다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종식될 것이고 과학과 의학적인 힘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절대적 안전을 찾을 수 없는 지금의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안전에 이를까요?

안전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편16편 마지막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동체에 소속되며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곳은 주께서 줄로 재어준 곳입니다.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곳, 우리에게 허락한 곳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안전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편의 아름다움은 기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기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1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

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쁨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 나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과 모든 곳은 안전한 상태이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거할 때 영, 육, 혼의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서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안전히 거해야 할 곳은 공동체, 개인, 사회, 국가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며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며 그곳이 아

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깃을 주시고 줄로 재어준 곳을 아름답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아름답게 하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안에 거할 때 어디나 안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며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아름다운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안에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아름다움을 안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서라 간사(YWAM)

단대기연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비교원들 : 사범대학 기독교인 연합(사범기연)



진나빛에 어떻게 사범기연을 소개하면 될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기고하셨던 분들의 필력이 좋으셔서, 저 같은 극 이과성향이 글을 쓰려니 막막하네요. 우선 사범기연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사범기연을 섬기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적어보려 합니다.

사범기연을 딱 한 가지 특징으로 규정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범기연을 한 가지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비교원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범기연은 사범대학 소속 학생들이 모이는 기독교인 연합으로 현재 물리교육, 수학교육, 교육학과, 체육교육, 독어교육, 국어교육 등 다양한 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9동 101호에서 월요일 17시에 모여서 식사교제 및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상관없이 사범대학 학생이건만 하면 그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진나빛 보고 사범기연 들어오고 싶으시거나 혹은 친구에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꾸벅 카톡 hkh730입니다.) 사범대 특성상 4학년 1학기부터는 활동을 하기 힘들기에 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학년 1학기의 경우 교생실습, 4학년 2학기의 경우 임용고시를 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학기의 경우 선배들의 임용고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기독교모임을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가 과별 기독교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이 글을 읽으시고, 우리 과에도 과별 기독교모임을 열고 싶은 분 또한 연락주시면 제가 장소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 사범기연 소개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광고글이 되어버렸군요.

1년 넘게 사범기연을 맡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끄럽지만 사범기연 대표를 맡기 이전에는 사범기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하던 선교단체 일도 바쁘기도 했고 교회일도 바빠서 사범기연 모임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앞의 것은 핑계고, 학업에 치중하느라 주님이 뒷전이었죠. 학업과 섬김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대표가 되어있더군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지요(하하). 사범기연 모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아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사범기연을 섬겼을 때는 성경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길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꽤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비참했고,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범기연이 이대로 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수에 집중하지 않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적은 저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바뀌어가니 사범기연의 모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정규 모임에는 오지 못하더라도 물질적 후원 등 도와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제 사범기연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 그렇지만 임기가 끝이 나더라도 소속원으로 열심히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사범기연의 후임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예배드렸던 모임에서, 후임자가 나오다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십니다.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분명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학부생이라면 각 소속 단과대학 기독교인 모임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습니다. 대학원생이라면, 심신이 지쳤을 때 주님 품으로 간다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기독교인 모임도 있으니 꼭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기독교인 연합을 위하여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력이 좋지 못한(기승전결도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한강현(수학교육 20)

선교단체 소식

별과 같이 밝히 빛나는 인생의 시작, ECU를 소개합니다!



기독교인 연합 내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건강한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은 나의 소중한 대학생활을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할지를 고민하는 입장으로써, 또는 캠퍼스 내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입장으로써는 공동체들이 서로 너무 비슷해 보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도록 간단하게 "성경 공부, 양육, 전도"의 세 가지 키워드로 복음주의 학생 운동인 ECU(Evangelical Christian Union)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공부입니다. 우리는 꾸준하고 정기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중심이 된 GBS(Group Bible Study)와 PBS(Personal Bible Study)를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가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렇기에 ECU는 해가 지날수록 자신과 지체들의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양육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들과 미신자들에게 복음과 신앙의 기초,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육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몰랐던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주면서 지체들은 앞으로 평생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생명력을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복음 전도를 위해 먼저 날마다 아침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캠퍼스 내 학우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초대하여 치킨을 먹으며 복음을 소개하는 치킨파티를 진행합니다. 또, 복음이 와닿지 않는 학우들을 위해서, 복음을 생각해볼 수 있는 메세지가 담긴 간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일지언정, 여전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노방전도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ECU는 계속하여 캠퍼스 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더 많이 와닿을 수 있도록, 시대에 적절한 다양한 전도의 방식들을 고민해보고 시도해볼 것입니다.

우리는 ECU로 활동하며 대학생으로서 지금의 시간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이 값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처럼 밝히 빛나는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최민호(기계 18)

중앙위원의 글

코로나 이후, 서기연에 찾아온 변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확산도 점점 세를 누그러뜨리면서 캠퍼스에도 대면의 활력이 서서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를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당연하지 않았던 일상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같아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나날들입니다. 특별히 교내 선교 단체들에게는 대면 활

동의 확장이 그 누구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깊게 스며들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온라인상으로는 너무나 큰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면으로 캠퍼스 모임들이 진행되면서 서기연 사역에도 많은 변화(정상화)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대의원회의가 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면으로 전환되고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회의를 하면서 각 선교단체를 넘은 연합으로써 모이는 의미가 더 와닿았습니다. 21년도에는 중앙위가 아닌 SFC대표로 대의원회의에 참여했었는데, 좁이라는 공간의 특

성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고, 때문에 주로 대표님께서 안건을 가져오시면 거기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에 제약도 컸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도 좁았던 것도 큰 한계였습니다. 서기연이 연합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연합이 무엇인지 고민하려는 노력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대면으로 전환된 후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건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큼니다.

다음으로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원제한이 있던 당시에도 저는 준비팀으로 개강예배와 중강예배를 섬겨서 감사하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매 예배마다 학기 중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저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권면해주는 은혜가 정말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다른 서기연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중앙위로 처음 지원하며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컸는데요, 감사하게 지난 1학기 중강예배부터 다시 교내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교내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위 모임도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위로 섬기는 유익 중 큰 부분이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서 얻는 사랑과 에너지인데, 대면으로 이를 경

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학기 중에 함께 MT도 가고, 피크닉도 하며 일상 속에서 섬을 얻었던 기억, 지나가며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선배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응원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번이기에 대면 시절의 비교군이 없지만, 이전의 서기연을 경험하신 선배들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축소된 것이 보이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중앙위로 서기연의 사역들을 꾸려나가느라 물리적으로 조금 버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 크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의 과도기가 있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앙위와 서기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의 고민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은 의심하지 않기에, 앞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기연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다은(영어영문 21)

사역 소식

국제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1. 저는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늘 학교가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학벌에 대해 자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무렵 예수 믿게 되었는데, 대학생 전도에 힘쓰고 있는 저에게 결혼은 언제 하느냐며 결혼을 강요

하는 부모님의 말로 부담을 느꼈을 때의 일입니다. 결혼 문제로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떼 좀 쓰면서 기도하자 결심하고, 배우자에 대한 1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 허락지 않으시면, 선교사로 나가겠다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대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저를 만났고, 남편이 서울대 교수까지 지낸 덕분에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당을 밟는 동안 밟았으니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였습니다.

남편의 퇴직을 3년 앞두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3년 전 캠퍼스에 자주 보게 되는 외국 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결심까지 가졌던 저에게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님이 주셔서 시작한 것이 국제문화센터(ICC;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입니다.



2. 우리 센터는 먼저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관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센터에 방문하는 유학생들에게 무엇이든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식음료, 기증받은 자전거, 생활용품들도 전해주기 시작하니까, 유학생들은 일상이 안정됨으로써 학교생활에 빠

르게 적응하며 훈훈한 한국 생활에 젖어 들었습니다.

50여 개 나라에서 학부부터 대학원, 박사 연구원, 교환교수 등 많은 학생들이 ICC를 다녀갔고, 봄·가을에 문화축제를 열어 각 나라의 음악 소개, 노래자랑, 한국문화 소개, 토크쇼 등을 하니 외국 학생들이 100명 정도 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와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는 학생 중에는, 자기 나라 기념품을 주고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각 나라 선교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학생들과 함께 서울 투어를 하면서 한복체험을 하였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은 천국에 온 아이들 모습 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우마이마'



라는 여학생과 우즈베키스탄 '자히드' 청년은 ICC가 다리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고, 김밥 만드는 방법과 잡채를 만드는 법을 우마이마에게 요리교실에서 가르쳐줬는데, 우마이마는 고국에 가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국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한 연구원은 한국에 단기로 와서 ICC에서 하는 한국 무용 교실과 요리 교실을 수강하였습니다. 핀란드에서 백야에 시달려 우울증까지 생

겼던 이 연구원은 한국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우울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핀란드로 돌아간 후 핀란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편에 초콜릿 선물과 감사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언어장벽에 부딪히고 향수에 시달리던 키르기스스탄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안아주고 국제 노래자랑대회에 나가보도록 권했는데, 2등이라는 놀라운 상을 받았습니. 이를 계기로 그 학생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주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어느새 4학년이 되어 영국으로 유학 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 경험 가운데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은, 2018년 5월 은누리교회 관악공동체와 함께 했던 체육대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하니 글로벌시대 한 가족같이 종교 이념을 넘어 30개 이상 나라, 학생 100명과 성도 150명, 전체 250명이 평생 한번 해 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기숙사 잔디 운동장에서 청군, 백군으로 나눠 줄다리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등 게임을 하며 언어가 필요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세계 속의 한국이 경쟁력이 있어 배우려고 오는 유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온 그들이 학문적 지식만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하러 오는 선교사가 계신데, ICC는 선교센터가 아니라 국제문화센터이어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리는 장소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 외부에서 교회나 선교센터의 역할

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우리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역할이 있고 다 필요한 기관인 것처럼, 따로 따르는 제 기능을 못하듯이, 연합될 때만이 목적을 이루는 제 기능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ICC문을 언제 여느냐고 문의하는 문자가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활동에 제한을 주고 나라마다 심각한 상황까지 닥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지만 재개된다면, 전세계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받았던 조건 없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울대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천한 저를 잠시나마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강희경(ICC 센터장)

돌아보는 2022

2022 서울대 원단금식기도회, 2년만에 다시 열리다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정명현(서양사학 19)

“2022년 서울대 원단금식기도회”가 2월 5일 서울대학교 500동 목암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진행되었다. 원단금식기도회는 서울대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학내의 구성원들이 하루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찬양과 감사”, “회개”, “대학복음화”, “교회와 나라와 열방”, “통일”이라는 다섯 가지의 기도제목이 제시되었으며, 순서마다 각기 다른 단체가 찬양과 설교, 그리고 기도인도를 담당했다. 매년 진행되어온 원단금식기도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고, 상황이 한결 나아진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열리게 되었다. 비록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었으나,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기도회에서 구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캠퍼스와 우리 주변,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의 불씨가 계속 이어져 서울대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1학기 개강예배: 박예나(심리 18)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이시다. 그 이유는 그분을 사랑할수록 나는 행복해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면 나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개강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게 하신 고백이었다. 개강 예배 때 드렸던 “뜻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중에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라는 가사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나도 예수로 내 가치관이 변했기에 더욱 공감 많이 되었다. 이 찬양은 불렀어도 감사했을 테지만 개강 예배 때 주신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든다. 개강 예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었는데, 나는 다시 대면수업을 들으려 하니 좀 막막했다. 하지만 이 찬양 속 고백을 통해 다시 내가 어떤 가치로 사는지 기억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연습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게 되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분, 사랑할수록 내가 평안해지는 분, 그 분이 참 좋은 분이시다.

중강예배: 장영석(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1)

찬양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기에 제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깊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사람의 시선과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허리춤이 내려가는 지도 모르고 춤을 추듯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 후 서울대를 위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죽기까지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능하고 죄 많은 저를 서울대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울처럼 살고 있는지 다윗처럼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채움 받고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전트립: 김주영(산림과학부 18)

저희 팀은 8월 15일부터 23일까지의 요르단 비전트립을 통해 요르단, 중동,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침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차에서, 현지 교회에 도착해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해서, 그리고 밤에 팀 모임에서까지 저희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도의 불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현지인분들과 난민 아동을 만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디럼이라는 사막에서 모닥불에 둘러앉아 예배드린 것은 팀원 중 그 누구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중동 어딘가에서 아브라함도 보았을 쏘아질듯한 수많은 별빛 아래서 저희는 어떤 것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로 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에서의 예배를 통해 뜨거워진 저희는 지금도 매일 밤에 현지에서 보내주시는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22 MT를 돌아보며: 문예은(편집부)

우선 이번 202122MT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단원으로서 장소 선정부터 간식 하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저희의 계획대호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대면 현장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면에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높은 빈도로 MT 때 인연을 맺게 된 학우들을 이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도 간 교제와 그 목적을 목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9월 초부터 10월까지 읽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재하셔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서 보내신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앞으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새 제가 사랑 없이 쾅쾅 울리는 쾅과리같이 보이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학기 개강: 최하영(언어학과 석사과정)

올해 가을은 유달리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서기연 개강예배가 그 낭만의 시작을 알렸던 것 같네요. 벼들꽃이러니! 선선한 날씨가 반겨주는 가운데 대학촌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자아썩스틴 찬양팀은 전에도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대면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차성진 목사님의 말씀에서는, 인생에 대해 현실적으로 성찰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아라.” 이 가사를 새롭게 고백했던 마음들이 오래도록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술계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3년 만에 본 단과대별 팻말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인기연에서의 잔잔한 우정과 응원은 학부시절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 시간이 흘러 인원이 조금씩 바뀌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하나 됨이 참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서기연 형제자매들의 복된 교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편집부



새내기 신앙 OT: 손명현(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1)

2021학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 했을 때 저는 신앙 OT의 존재는 알았지만 내성적인 성격 상 쑥스러워서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희 과에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선교단체에도 들어가면서 서울대에 이렇게나 많은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이 있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기독교인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새내기 신앙 OT에 조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OT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학과, 신앙적인 배경 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게 행복했습니다. 특히 새내기 친구들한테 감동과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은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끼는 찬양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돌아보는 2022년 -진리는 나의 빛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점차 일상이 회복된 2022년을 돌아보면 서기연 전체에 감사한 해였다. 대면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학생들의 캠퍼스 내 복음 전도와 신앙 모임이 활성화되었으며 새로운 사역도 펼쳐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진리는 나의 빛”에도 감사한 일이 많았다.

독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감사한 점이다. 본지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개·종강 예배에서 배포되어 서기연 지체들을 만나곤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며 지난 몇 년간 여러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인쇄된 지면이 서기연 동아리방에 쌓이는 것을 볼 때면 가슴 아팠다. 이러한 아픔은 1학기 종강예배가 대면 진행으로 진행되어 이전처럼 배포되며 해소되었다. 개강예배 자리에서 “진리는 나의 빛” 지면을 읽는 독자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본지는 서기연 사이트(<https://ecclesha.com/>)가 준비되며 독자와 만남의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호(108호) 보도와 같이 서기연 사이트는 단장을 마무리하고 이용자들이 맞이할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 본지 지난 호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향후의 기사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문예은 학생기자를 새로운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다. 지난 1학기, 필자는 개인적인 사정상 이번 학기부터 말을 후임 기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후임 기사를 보내주시길 기도하였고, 놀랍게도 교양강의 첫 수업에서의 옆자리라는 우연을 통해 실패하고 밝은 자매를 보내주셨다. 처음 따로 만나는 자리

에서 본지 학생기자를 제안하였고, 문 기자는 흔쾌히 수락했다. 함께 일을 할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일이다.

많은 분의 기고와 새로운 주제의 기사로 지면도 풍성하였다. 봄호(106호)에는 주우진 교수님(경영학부)께서 기고해주신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칼럼이 흥미로우면서도 실용적인 주제로 독자의 관심을 모았다. 2022년 신앙OT에 참여한 헬퍼들과 새내기들의 간증과 작정도 은혜를 전했다. 여름호(107호)에는 학술세계 속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기사가 많았다. 학회 차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한 이경건 편집인이 현지에서 교수로 계신 본교 기독교인 선배들을 만나 말씀을 들은 기사와 관악에 오신 Tony Qian 교수님께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차이 등을 인터뷰한 기사가 함께 실렸다. 이를 통해 학생 독자들이 신앙과 학문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기대한다. 가을호(108호)에는 민병곤 교수님(국어교육과)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칼럼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이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세계로 나간 서기연 학생들의 소식도 이목을 끌었다. 요르단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돌아온 비전트립팀의 기고와 체코 종교개혁 성지를 탐방한 필자의 기사를 계기로 서기연 다른 지체들도 세계로 뻗어나가 크게 쓰임 받기를 희망한다.

한해를 이끌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기획 “돌아보는 2022년을” 맺는다.

장동원 학생기자(중어중문 19)



1월 새내기 신앙 OT



3월 1학기 개강예배



6월 1학기 종강예배



5월 행사



8월 202122학번 신앙 MT



8월 비전트립



10월 2학기 개강예배 현장

신앙 MT 인터뷰



김성현(인문계열 22) 공의진(수리 21) 양진영(수의예과 22.5) 김주형(산공 21)

학번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인문계열 김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수의예과 양진영입니다.
수리과학부 21학번에 재학 중인 공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21, 만 20살 유하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2학년 산업공학과 재학 중인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1. 신앙 MT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성현: 저는 인기연박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인기연 단톡방에서 공지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저는 이번년도 9월에 신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22.5학번 공지방에 신앙 MT가 공지로 뚫어졌어요. 학기 시작 전에 저 같은 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의진: IVF 활동을 2년째 하고 있는데 동아리 내 선배들이 홍보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 제가 공대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표 선배님께서 공지로 알려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형: IVF에 몇 번 공지가 올라왔었는데, 옆에서 친한 친구들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관심가지게 되었습니다.

2. MT를 하는 주가 방학 끝주라 학기 시작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은 시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중 신앙 MT에 참여함을 통해 어떤 것을 얻고자 하셨나요?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성현: 제가 저희 반 말고 다른 단과대에 아는 친구가 없어 가지고 다른 학과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말 그대로 학교 시작 전에 저처럼 기독교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항상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신앙 MT 이전에 22.5학번 다른 MT를 갔었는데 술 마시는 것이 조금 심해서 이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서로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 MT를 갔던 것 같아요.
의진: 방학 때 하던 게 거의 없어서 조금 여유롭던 시기였긴 했습니다. 엠티에 참여한 이유는 IVF 친구들밖에 몰랐어서 더 다양한 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쪽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서 주변에 기독교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었는데, 대학 오고 나서는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크리스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주변에 그런 일상적으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다른 동아리의 뮤직 캠프 가는 기간이랑 겹쳤었어서 원래는 못 가는 거였는데 다른 일로 그걸 드랍하게 되면서 1주일이 확 비어버린 거예요. 시간 남김에 여기에 가야지 하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형: MT 후 바로 그 주 목, 금, 토에 다른 MT가 있던 기억이 납니다. 바쁘긴 했지만 그런 동시에 방학의 끝을 불태워보자 하고 잡았던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IVF 외에는 딱히 다른 기독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사실 IVF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서 새로운,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번 신앙 MT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혹시 당시 기도제목이 있으셨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현: 참여할 때에 약간 긴장했던 것 같긴 한데 기대도 되고, 대부분이 처음 보는 친구들이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진영: 기대되면서도 조금 무서운 거예요. 또 저는 거기있던 사람들이 다 새로우니까 후회도 살짝 했어요. 사람들 만나는데 웃는 병풍처럼 '네.. 양진영입니다.' '만 50번 하고 집에 가는 건가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 좋았어요.
의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기회가 될 텐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보내 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새롭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적었고 개

강, 종강 예배도 다 참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텐데 그것에 대한 긴장감,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은: 설렘과 동시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형: 사실 맨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그곳에 기독교라는 것만으로 모였지 사실은 IVF 친구들 외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1박 2일밖에 안 되는데 누굴 어떻게 사귀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는 제 인간관계가 이후로 많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큰 사건이 되었고, 또 항상 저희 엄마 기도 제목이었던, '대학을 와서 과 친구도 좋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가 MT를 통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4.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듯 한데, 부모님 허락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성현: 딱히 상관은 없었는데 공부 좀 하고 곧 학기 시작하는데 놀기만 했다고 몇마디 듣기는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진영: 부모님은 홍콩에 계셔서 저는 혼자서 한국에 온 상태였어요. 그 문제로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 가보고 싶으면 가는 거니까 하고 왔습니다.
의진: 부모님이 나갔다 오는 거 딱히 신경 안 쓰십니다.
하은: 일단 저는 부모님께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고, 우선 다른 곳을 1주일을 갔다 와야 했는데 1박 2일이야 뭐 시간이 많았죠.
주형: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5. 이전까지 20/21/22 학우들과 대면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성현: 서기연은 인기연 때 만나는 분들 말고는 모르는 상태였고, 저희 반은 22학번은 자주 만나는데 선배님들은 많이 못 뵈었던 것 같아요.
진영: 만날 기회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22.5 MT가 있었는데, 애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광란의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가 경기도 남양주였는데, 저는 혼자서 집으로 왔어요 ㅋㅋ 학교 공식 22.5 OT에서 만난 언니 빼고는 거의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진: IVF 친구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은: 학과 친구들이랑만 주로 많이 만났던 것 같고, 또래 기독교 친구들이랑 만난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형: 아니요, 과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신앙 MT도 안 갔었어가지고.

6. 신앙 MT의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가장 인상깊거나 재미있었던 것 2가지를 꼽는다면?

성현: 레크리에이션을 하다보니 애들이랑 많이 친해졌잖아요. MT 장소가 마침 집 근처였는데 남자애들이랑 산책도 하고, 밤새 수도도 펴고 그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수안이랑 다른 지체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재미있었습니다. 간증 중에서는 캠퍼스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티 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5가지 말씀해주셨던 게 인상깊었던 것 같아요.
진영: 좀비 게임했던 거랑 성경 OX 퀴즈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수건 돌리기도 재미있었고요! 언니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한 언니가 엄청 열심히 박수를 치는데도 엄청 요리조리 잘 피하고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우리 조에 다른 언니들이 있었는데, 진짜 의자를 이용해서 너무 게임을 잘했었고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대결 조 남자분이 진짜 안 잡히는 거예요. 7초 차이로 졌는데 남은 한 명은 누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이거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대단하다. 성경 OX 퀴즈에서는 일상생활 변의 문제로 떨어진 경우 말고는 다 맞춘 친구가 있을 정도로 다들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의진: 간증 시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 서기연 활동을 하시던 모습이 재밌어 보였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밤 새면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 사람들과 그렇게 놀아본 경험이 기존에 없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던 것에 인상 깊었고, 일정이 다 끝난 후에 몇 친구들이랑 밤을 새면서 보드게임을 했는데, 그 계기를 통해 많이 친해졌고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진솔한 모습을 게임을 통해 많이 보면서 신앙적인 면 외에 인간적인 면도 많이 봤던 것 같고, 내숭 떠는 단계를 건너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형: 처음에 찬양을 할 때 다들 이제 일어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는 오?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앞에 분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뛰지는 못하고 발만 들었다 내렸다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우연히 몇 명에서 보드게임으로 밤을 새게 되었는데, 제가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건전한 보드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7. MT 이후의 삶 중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관계, 신앙적인 여러 부분에서)

성현: 신앙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한 건 아닌데 그때 와서 강연해주신 분도 계셨어서 학교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지 그런 방향도 조금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서기연에 아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영: 서울대 안에서 기독교 사람들을 통해 제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기독교 동아리도 시작하고 자극을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진: 새로운 친구 관계가 많이 생겨났고 이 친구들과 만나고 노는 시간이 대학 생활의 거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혼자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렸습니다.

하은: 일단 기도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같이 기독교적인 면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때만 만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고 나니까, 예전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주변에 물드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크리스천 친구들을 통해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형: MT를 하고서 한 이틀 있다가 인생에 되게 힘든 큰 고난이 찾아와서 기존에 속해 있던 동아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IVF 아님) 지금 생각해보면 기존 동아리 내 인간관계가 많이 깨졌는데 이번 서기연 MT에서 만난 친구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MT 이후로 이전보다 하나님을 많



이 찾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신앙 이야기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MT 때문은 아니지만 MT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8. 나에게 202122 MT란? 1줄 요약을 하자면?

성현: 환영회이자, 서로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

진영: 대학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디딤돌

의진: 좋은 기독교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준 좋은 곳

하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의 기도응답. (제 이름과 같이)

주형: 2022 최대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준 밭줄

문예은 학생기자(산림과학 21)

1학기 개강예배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20학번 이조은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서울대기독교연합 개강예배에 대해 글을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개강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받았던 마음들을 짧게나마 여러분과 나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개강예배 때 제가 속한 선교단체 지체들과 함께 당일 예배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배에 오는 지체들에게 주보를 전달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이었죠. 사실 1학기 서기연 종강예배에서도 안내 담당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개강예배에 앞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는 제 자만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학기의 학생회관 라운지와 달리 버들골 노천강당에서 진행된 2학기 개강예배는 열린 장소라는 특성상 입구가 따로 없었기에 여러 방향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분들 모두를 안내해 드리기에는 안내위원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날은 제 예상보다 많은 지체들이 안내를 도와주러 왔었고 저희는 큰 무리 없이 예배 안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만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안내를 해드리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연합과 연합예배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안내위원으로서 예배의 자리로 오는 지체들을 가장 먼저 환영하며 맞아줄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러한 연합의 자리를 통해 자주 보지 못하는 지체들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지체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단체의 지체들과 단체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 진정으로 연합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온 수많은 이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안내위원으로서 예배 준비현장 근처에서 찬양팀과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앞서 찬양을 부르며 준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 옆에서 같이 안내를 돕던 지체가 그 찬양을 들으며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며 별다른 생각 없이 예배에 왔던 저에게도 예배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저에게 있던 기대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의 그것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가서 다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서 그 예배의 열기가 넘쳐흐름을 느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추위는 조금 견디기 어렵긴 했습니다. 아마 개강예배에 오신 분들은 많이들 동의하시

겠지만 그 날은 10월 초의 날씨치곤 꽤나 쌀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예배 중후반부터는 몸을 웅크리고 떨떨 떨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차성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한 순간도 집중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성진 목사님께서 그 날 전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고 인간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모태신앙이자 한평생을 목회자 자녀로 자라온 저로서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불가피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날 개강예배의 자리에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고려해보지 않았던 분들 말입니다. 또 어쩌면 새롭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 이제 막 이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 분들도 그 예배에 함께 계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지체에게든 새롭게 찾아온 지체에게든, 그 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강 연합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날의 말씀은, 또 그 날의 은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처음 "진리는 나의 빛"을 위해 글을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글쓰기도, 믿음의 성숙함도 부족한 제가 연합예배에 대한 글을 적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지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다른 지체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글을 적게 되었

고, 오히려 이 글을 통해 예배 때 받았던 마음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그 날의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며 개강예배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학기 서기연 종강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의 개강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12월에 있을 종강예배를 위해서도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종강예배와 연합예배의 자리에서, 또 앞으로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은(기계항공 20)

2학기 개강예배 사진



버들골 풍산마당에서의 예배



찬양의 자리



말씀 시작 전 기도



찬양의 자리



예배 후 교제의 시간



예배 시작 전 준비



예배 시작을 위해 착석



아이자야씩스티원 찬양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에 관한 말씀